

## 건강도둑

### 크레이프스 병 (갑상선기능항진증)

부인과 같이 오랫동안 영국에서 머물른 상인이 최근 귀국하였다. 처음에는 혼자서 살다가 부인을 불러 간것인데 부인은 영국에 가서 얼마뒤 병을 얻고 말았다. 그것도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을 한 것이다.

다행히 부인은 회복하여 돌아 오기는 하였으나 그동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들려 주었다.

「처음에는 일찍 들어 보지 못한 병명이

였으므로 이상한 병인줄 알았습니다. 크레이프스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주위가 붓고 갑상선이 나쁘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병명이면 그런 소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인은 무슨 병을 앓았을까?

× ×

우리는 갑상선이 자가증독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갑상선기능항진증(甲状腺機能亢進症), 또는 갑상선중독증(甲状腺中毒症)이라고 하는데 이병을 독일에서는 하세도씨병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크레이프스병이라고 부른다.

그까닭은 독일의사『하세도』가 이병을 처음발견한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병을 하세도씨병이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병에 관하여 최초로 기록을 남긴사람인 아일랜드 의사 크레이프스의 이름을 따서 영미의학계에서는 이병을 크레이프스병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병은 여자에게 많고 눈이 튀어 나오는 듯한 모양을 하고 갑상선이 붓고 맥박이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땀, 미열, 월경 이상, 손가락이 붓는것, 야위는 것등 증상이 나타난다.

## 어두운 곳을 잘 보는 방법

어느날 일요일낮에 렌트겐기사인 Y는 영화관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같은 병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K를 기다리는 것이다.

K는 저작상습범이므로 영화가 시작하기 30분전을 약속시간으로 정했다. 열변이나 시계를 쳐다보면서 몇개피의 담배를 꾀조로 만들고 나니 K가 나타났다. 영화시작 시간은 이미 지났다. Y는 어정거리는 K를 큰소리로 불러 낚아 채 가지고 어두운 영화관으로 밀고 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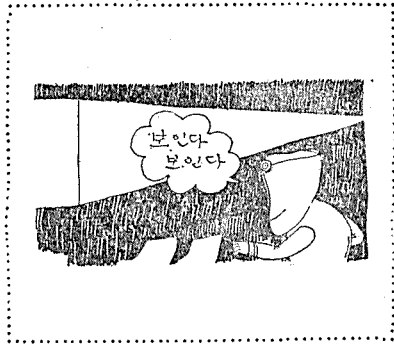
영화관에 들어 간 Y는 곧 바로 빈 좌석을 찾았는데 K는 또 어정거리고만 있었다. Y는 렌트겐기사인 때문에 어두운 곳을 잘 보는가?

×

×

밝은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 가면 물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밝은 장소에서 물건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눈은 너무 빛이 많이 들어 오지 않도록 동공(瞳孔)이 줄어들는다. 어두운데서는 될수 있는대로 많은 광선을 넣기 위해 동공이 넓어진다. 밝고 어두운데 따라 눈은 이와같은 조



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만으로 눈이 밝고 어두운데 익숙해져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눈이 빛을 받아드리는 것은 망막(網膜)세포의 활동인데 이 세포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밝은데서 보는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어두운장소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역할이나 분담 교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어두운데 눈이 익숙해 지는 것을 암순응(暗順應)이라 하고 밝은데 익숙해지는 것을 명순응(明順應)이라고 하는데 암순응은 명순응에 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할때는 충분히 어둠에 눈을 익숙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보통 암실에서 렌트겐을 보는 의사가 사전에 특수하게 만들어진 검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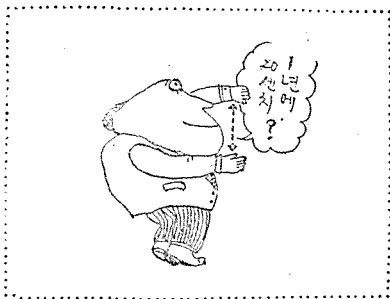
## 건강 토픽

경을 쓰는 것은 암실에 들어가서 잘 보이도록 눈을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보통 색안경을 오래 쓰고 있어도 어느정도 어둠에 익숙할 수 있다.

영화관에 들어 가서 곧 자리를 찾아 가려면 사전에 눈이 암순응에 걸리는 시간을 조절해 둘 필요가 있다. K가 영화관에 들어서자 쉽게 빈자리를 찾아 낸것은 기다리고 있는 사이 눈을 암순응에 적응시켰기 때문이다. 색안경을 썼다는 말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아뭏든 지각상습범인 K를 기다리면서 렌트계기사인 Y는 직업의식에 따라서도 어두운데 눈을 익혀 두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먼지용안경을 끼었는지도 모르겠다.

### 1년에 20센치나 자랐다

어느 회사원의 영업과에 키다리가 많았다.



별로 영업정책상 그런것도 아닌데 과원들은 대부분 키가 컸다. 그런데 과장은 키가 작았다.

어느날 휴식시간에 두사람의 키다리 직원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6년간 매월 1cm씩 커나갔다」

「나도 중학시절에 1년에 15cm나 큰적이 있다」

옆에서 이말을 듣고 있던 과장이 한마디 거들었는데 「나도 1년에 20cm 이상 큰 실적이 있단말이야」 과연 과장이 농담을 한 것일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

1년에 키가 20cm정도 늘어 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우리들의 신장은 25세(남)나 20세(여)정도에서 다 크다. 그동안에 사춘기에 들어 갈때 12세(남), 11세(여)정도에 서 한번 갑자기 늘어 질때가 있지만 생후 1~2년 사이처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어린애기의 신장은 약 50cm정도이다. 이것이 만 1년이 지나 틀이 되면 75cm 정도가 된다. 1년사이에 25cm나 늘어난 셈이 된다. 적어도 20cm 전후는 커진다. 한뼉을 지나면 다음 1년은 10cm, 그다음 1년은 7cm, 또 6cm로 떨어지다가 국민학교에 들어

갈때는 해마다 5cm정도로 늘어 난다. 이것이 사춘기에 들어 다시 7~8cm 늘어 난다.

따라서 영업과원이 1년에 15cm나 컸다고 한 말이나 영업과장이 자기도 20cm이상 큰적이 있다고 한말은 젓먹이 시절을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키다리들을 놀려 주기 위해 젓먹이시절의 신장성장속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아시절을 알아보면 더욱 재미있다. 1mm의 1/4정도밖에 안되던 난자가 280일후에 50cm가 되었다고 함은 놀랄만한 성장속도가 아닐수 없다.

## 왜 가스중독인 것을 알았는가

독신주의인 K의사는 사람을 싫어 한다.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맞나는 일이 없고 맨션의 10층에서 혼자 살면서 휴일에는 혼자서 산보를 하곤 한다.

그런데 K의사는 유별나게도 남모르는 취미를 한가지 가지고 있었다. 그 취미란 매일아침 건너쪽에 있는 맨션뒷창문을 쌍안경으로 쳐다 보면서 즐기는 것이다.



어느 겨울날 아침 어느 창문에 비친 광경을 보고 K의사는 놀라고 말했다. 반쯤 열린 카텐사이로 팔 다리를 내놓고 넘어진 여자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다시 배수가 높은 망원경으로 사실을 확인한 K의사는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8층방에 여자가 넘어져 있다. 틀림없이 가스중독이다.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시각이라도 빨리 창문과 방문을 열도록 하라. 나도 빨리 가겠다.」 아무런 직업이라 해도 원거리서 바라만 보고서 어떻게 가스중독인 것을 알았을까?

×

×

겨울철에 방안에 사람이 넘어져 있다면 가스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가스중독이라면 그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K의사가 망원경으로 확인한 것은 넘어져 있는 여자의 피부색갈이었다.

급성 일산화탄소의 증독과 다른 원인에 의한 실신상태와의 특징적인 차이는 피부의 색깔이다. 가스증독의 경우는 전신이 붉어 지는데 이것은 혈색소(헤모그로빈)가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되면 피의 색깔이 더욱 붉어지게 된다. 또 일산화탄소의 농도나 증독후의 시간경과에 따라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반점이 나오면 중증이며 죽은 뒤의 징조인지도 모르므로 K의사가 손이 늦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은 피부가 붉어졌다는 것 외에 반점을 확인한 때문이다.

겨울철에 팔 다리를 내놓은 것은 난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난방이면 창문이 반쯤 열리거나 그곳을 통해 쌍안경으로 방안을 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어쩐일이나. 이 문제는 처음에는 난방이었으나 중간에 난방이 고장나서 가스스토브를 가동시켰으나 실내의 산소부족으로 이불이 꺼지고 여성이 가스증독을 맞았다는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 비밀로 한 위장검사가 탄로난 원인

N은 요즈음 원기가 없고 회사사업도 잘

안되는때다 위장도 나빠져 골치가 아팠다.

농촌의 옛날 집에 살면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회사까지 통근을 하니 여간 괴롭지 않다. 한번 종합집단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마누라에게 역정만 내 온 N였다.

그러나 자기도 내심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날 아무도 모르게 위장검사를 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날 아침은 밥맛이 없다는 핑계로 밥을 먹지 않고 다른 말없이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마누라는 눈치를 채고서 「당신 위장검사를 했지요」한다. 「누구한테 들었소」 하니 「아무한테도 듣지는 않았지만 나는 알아요」한다.

시침이를 떼고 있던 N씨는 쑥스러웠으나 성을 낼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해 졌다. 어떻게 비밀이 새고 말았을까?

× ×

한번이라도 위의 엑스레이검사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그 비밀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위 주머니는 그대로는 엑스레이에 그림자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위장모양이나 절막의 상태를 엑스레이로 알려면 촬영전에 조영제(造影劑)를 먹인다. 이 조영제를 바리움(유산바리움)이라 한다.

흰 색을 가진 바리움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위장에서 흡수되지 않는다.



그때문에 곧바로 대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후의 대변은 바리움의 색깔인 흰색이다.

N는 농촌의 옛날집에서 살고 있으므로 수세식이 아닌 보통변소에서 대변을 본다. N의 마누라는 변소에 흰 대변이 있는 것을 보고 아침밥을 먹지 않고 위장이 나쁘다고 하던 남편 생각을 한 결과 위장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바리움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비(便秘)를 하는 사람이 많다. 심한사람은 완하제(緩下劑)를 먹어야 한다.

또 한가지 바리움이야기를 해 보겠다. 아버지가 몸이 편치 않다고 해서 어머니가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이를 알고 걱정을 하고 있던 이들은 병원에서 있던 일을 물었다. 그러나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병원

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검사와 진찰을 받았는지 알수 없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바리움을 먹고 레트겐을 찍은 것만은 알았다. 그러면 위암이라도 걸린 것인가 걱정하면서 병원을 찾아가 의사한테 물어 보았다. 「아버님이 위라도 나쁘니까」 하니 의사는 진찰과를 보여 주면서 「예 레트겐은 촬영했읍니다마는 위검사를 한일은 없읍니다」고 한다.

그러면 바리움은 왜 먹었을까 아버지는 흰물을 먹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 못 안 것일까?

×

×

흰물을 먹고 레트겐사진을 찍었다면 바리움을 사용한 검사는 틀림없다. 바리움을 먹는 목적은 위장안쪽에서 솔모양의 그림자를 찍어 내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장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검사가 아니라도 바리움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심장의 레트겐검사를 위해서다.

가슴의 레트겐사진을 찍으면 가슴 한가운데 크고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이것이 심장인데 그 크기나 모양은 심장의 어느곳이 나쁜가를 아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도 옆으로 누운 위치에서 사진을 찍으면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얻을 수 없는 심장의 모습을 알

## 건강 토크

아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바리움을 먹이는 것이다.

바리움을 먹으면 심장의 뒤에 있는 식도가 렌트겐사진에 그림자를 나타낸다. 엮기서 식도와 심장과의 위치 관계나 식도가 심장을 누르고 있는 모양에서 심장의 진단을 확실히 하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심장이 나쁘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 글자 한자 잘못 본 것 때문에 생긴 일

때때로 눈에 핏발이 선다고 말하는 젊은 이들이 있다. 놀라서 조사를 하여 보면 그것은 안저출혈(眼底出血)이 아니고 흰자위가 충혈이 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의학 용어를 신용할 때도 이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수가 있다.

어느 젊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의사를 찾아 왔다. 불안해서 죽겠다는 이야기다.

어느날 젖먹이를 검진할때 어린아이에게 날때부터 생긴 증상이 있길래 크면 자연적으로 나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일이 있다. 그리고 가정의학책을 내 놓고 해당 항목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얼마후 그 어머니는 신문지상의 의학해설기사를 읽고 깜짝 놀란 것이다. 아기에게 있는 증상이 정신박약으로 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명을 한 글자 틀리게 본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 어머니는 무슨 병과 어떤 병을 혼동했을까?

× ×

그 어머니는 몽고반(蒙古斑)이므로 걱정할것 없다는 것을 신문에서 몽고증(蒙古症) 기사를 읽고 놀란 것이다.

몽고반이라 함은 어린애들한테서 흔히 보는 푸른 점을 말한다. 어린애들 엉덩이에서 흔히 많은 이점은 자라면서 없어지는 것이므로 병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물론 청색모반(靑色母斑)이라고 해서 푸른등이가 본격적인 피부병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푸른 잉크를 발라 놓은 것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데 불철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야한다.

그리고 몽고반과 혼동한 몽고증은 정식명칭이 다운 증후군(症候群)이라고 하는 것인데 태아시절에 염색체수가 하나더 늘어나서 생기는 이상하고 불행한 병이다.

이 병은 머리, 코, 귀, 손, 손가락 등이 작고 혀가 크며 눈이 가늘게 찢어져 위로 치켜 올라가 몽고인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지능도 대단히 낮아서 보통교육으로 이들을 교육시키기 어렵다. 중증의 정신박약 아동 1할이 이 '다운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가하면 어린이 600명에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아무런特效약이나 유효한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따뜻한 사회적 보호가 이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이다.

## 2주만에 나은 위궤양, 그 정체는?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그 뒤」하면서 병원의 주치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은 위가 나쁘다고 찾아 왔던 남자인데 한달전에 위장렌트겐사진을 찍고 나서 소식이 없던 사람이다. 「그동안 제주도에 출

장가서 있었는데 그 곳에서 위가 매우 아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위 렌트겐검사를 받았더니 위궤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사진도 보여 주었습니다. 아는 사람집에서 약 2주일가량 정양을 하고 나서 다시 렌트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궤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주치의는 걱정이 되어서 한달전에 찍은 필름을 보았다 위궤양같은 것은 아무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면 환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인가? 아무곳에서도 이상한데가 없는가?

×

×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던 위궤양(胃粘膜)에 궤양이 생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궤양이 1~2주일만에 깨끗이 나아 버린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장카메라나 내시경(內視鏡)의 진보에 의하여 잘 알려진 일이다.

위장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거나 감정의 샘이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내장기관이다. 대부분의 위장증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긴장)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이며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도 대부분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